

# 다시, 희망의 공: 2023

*“금단의 사과를 먹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변화된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개최된 글로벌 HRD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내심 걱정이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다. 그 이유는 우리들 앞에 놓인 숙제가 그만큼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제 인류는 혼란의 시기를 뒤로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 과정마저 쉽지는 않겠지만, 크고 작은 이러한 경험은 인류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다양한 모습으로 진보된 문명을 창출해왔다. 나는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3년이란 고통의 시간이 30년 정도의 변화를 압축시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유익을 몇 가지 눈 여겨 보았다.

먼저, 우리에게 낯설지만 익숙해져 버린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개념이다. 20여 년 전 미국 유학시절 이 개념을 처음 접하고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인들은 팔 길이 정도의 거리(1~2m)를 사회적 거리로 정의하고, 가족이 아니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상에서 이 사회적 거리는 에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존중되었는데,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공간을 인정받고, 동시에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동·서를 떠나 성숙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이 아닌가 싶다.

다음으로, ‘위생’에 대한 개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회식자리에서 흔히 소주잔을 돌리고, 테이블 위에 탕이나 찌개는 함께 공유해서 먹는 게 일상이었다. 돌아오는 소주잔을 닦아 먹거나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경우 눈치가 보여 망설이기도 일췌었다. 이러한 관습을 우리들만의 음식문화로 포장하고 넘어가기에는 위생의 관점에서 너무 치명적인 것이었다. 아마 이런 문화를 오늘의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면 1세대는 족히 넘는 시간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간’에 대한 재해석이다. 우리의 일상은 이동과 머무름의 반복이다. 이동해야만 하는 속성을 가진 인간에게 형벌처럼 주어진 ‘속박’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동선과 공간에 갇힌 채로 우울감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며 주거와 일터, 일과 휴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활양식에 눈을 뜨게 되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85% 이상의 직장인들이 완전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처럼 근무형태를 복귀하는 회사에서는 출사표를 던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는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듯싶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일상과 삶의 방식을 바꿔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길었다. 마치 금단의 사과를 먹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변화된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새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그 희망의 공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C.E.O James Roh (노상충)

“인간은 인식의 나무열매를 이미 먹어버렸다” \_ 막스 베버